

통계로 본 2026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동향

박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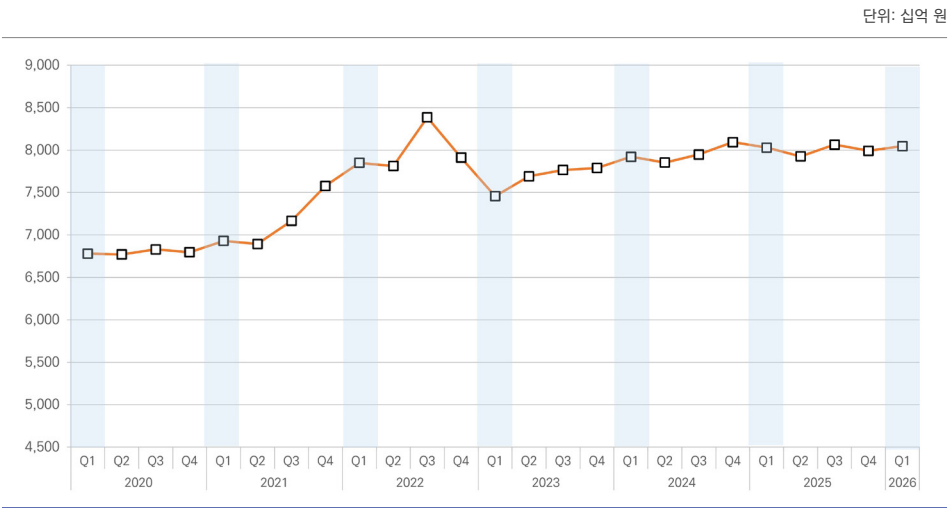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6년 제10호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 관련 2026년 상반기(1~6월)의 주요 지표(거시경제, 출하 및 물가, 재고, 수출입, 고용, 식품산업 1~2분기 경기 현황 및 3분기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가공·분석하여 정리함.
- 분석 결과, 1) 2026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와 가계의 실질 식품 지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함. 2) 2026년 상반기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의 출하는 감소하였으나, 생산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 3)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재고 조정 흐름은 업종별 차이를 보임. 4) 가공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함. 5) 식품제조업 고용은 식료품제조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함. 6) 2026년 3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중대규모 기업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기대됨.

1. 2026년 1분기 식품산업 관련 거시지표

2026년 1분기 식품제조업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식품에 대한 실질 가계소비지출도 증가

- 2026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8.05조 원으로, 전년 동기(8.03조 원) 대비 0.22%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여 식품제조업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음.
 - 이는 2026년 1분기 제조업 성장이 반도체산업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식품제조업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식품제조업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과 환율 등 비용 측면의 부담이 지속되면서 생산 증가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I 식품제조업 분기별 실질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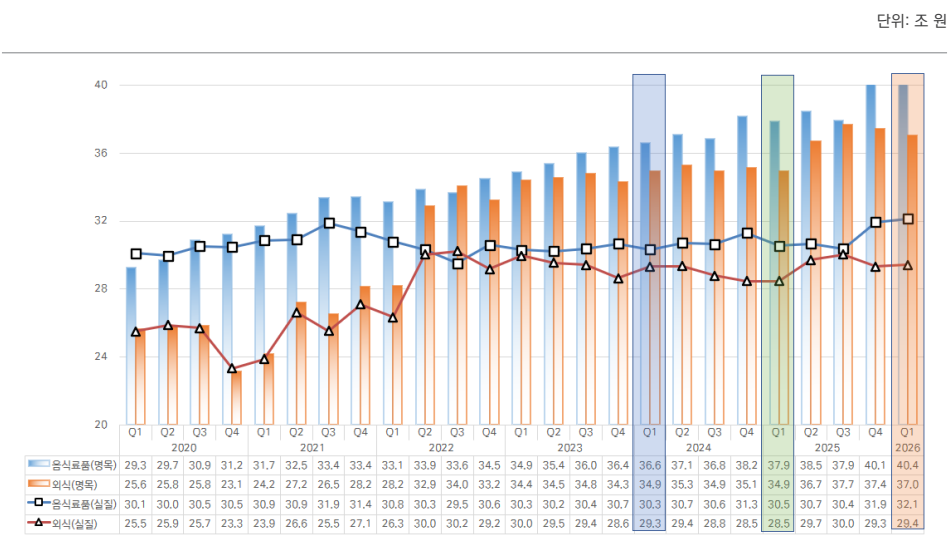


주: 분기별 실질 GDP는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6 1/4, 2026.8.1., 경제활동별 GDP 및 GNI.

- 한편, 같은 기간 가계의 실질 식품(음식료품+외식) 지출액은 61.5조 원으로, 전년 동기(59.0조 원) 대비 4.4% 증가하였음.
 - 음식료품에 대한 실질 지출액은 3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외식 부문도 29.4조 원으로 3.4% 증가함.
 - 음식료품과 외식 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계의 식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음식료품 지출 증가율이 외식보다 높게 나타나 가정 내 식품 소비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임.

I 음식료품 및 외식(음식/숙박)에 대한 분기별 가계소비지출(실질/명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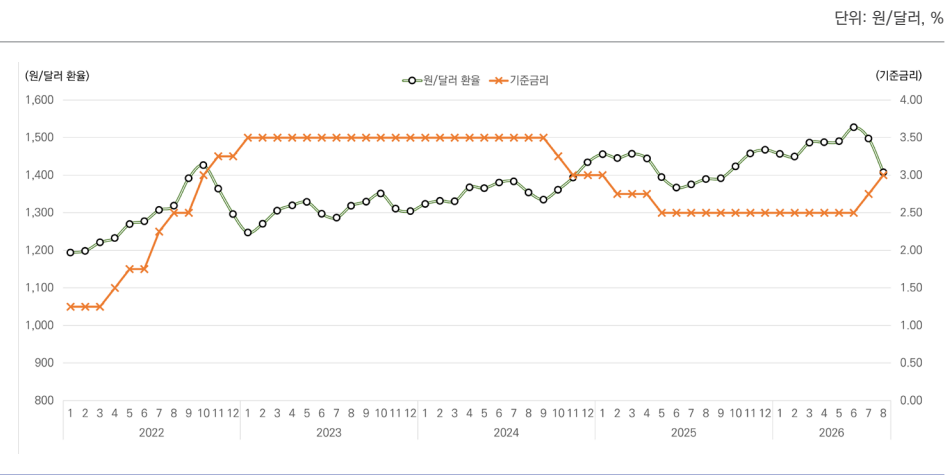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6 1/4, 2026.8.1.,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원/달러 환율은 2025년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2026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으며, 1분기 평균 1,464.2원에서 2분기 1,501.6원으로 상승하였음.

- 2026년 상반기 평균 환율은 1,482.9원으로 전년 동기(1,427.3원) 대비 3.9% 높은 수준이며, 특히 6월 평균 환율은 1,527.3원까지 상승하며 원화 약세가 심화됨. 이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 (‘25년 4분기) 1,449.5 → (‘26년 1분기) 1,464.2 → (2분기) 1,501.6
- 한편, 국내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이후 2.5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한국은행은 2026년 상반기 중 경기 회복세와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를 동결함.
 - 금리: (‘25년 5월) 2.50% → (‘26년 1분기) 2.50% → (2분기) 2.50%

I 월별 대미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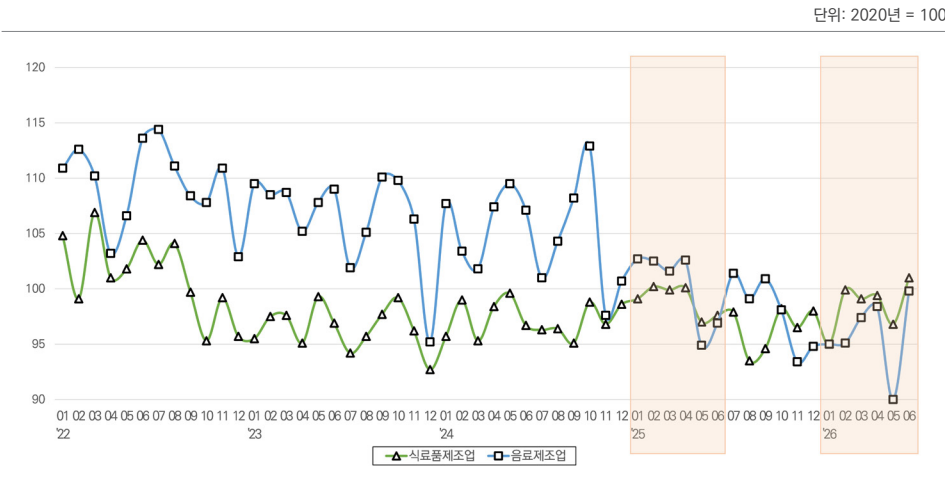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60731, 2026.8.28.,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60629, 2026.8.28.,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2.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 및 물가

2026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출하는 업종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였으며, 생산자물가 역시 원재료 가격 여건에 따라 품목별 차이가 나타남

- 2026년 상반기 식료품제조업의 출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음료제조업은 4.2% 감소하였음.
 - 식료품제조업의 출하지수는 1분기 98.0에서 2분기 99.1로 상승하여, 상반기 중 출하 흐름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음료제조업은 1분기 95.8에서 2분기 96.1로 소폭 상승함.
-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 출하는 전년보다 다소 낮았으나, 2분기 들어 식료품과 음료 모두 출하가 개선되면서 하반기 생산·판매 여건의 회복 가능성이 나타남 것으로 판단됨.
 - 식료품제조업 출하지수: (‘26년 1분기) 98.0 → (2분기) 99.1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26년 1분기) 95.8 → (2분기) 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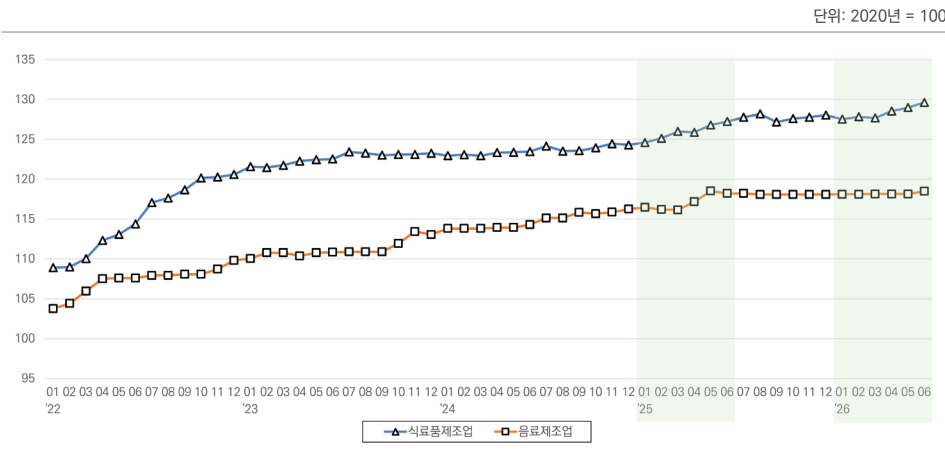
I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월별 출하지수(계절조정) 추이



주 1) 2026년 5~6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정정될 수 있음.
2) 출하지수는 대표품목(490개)의 금액조사 후 각 품목에 대해 생산자물가지수를 환가하여 물량 단위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6.6, 2026.8.1.,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 2026년 상반기 식품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
 - 식품제조업의 상반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로, 전년 동기(125.9) 대비 1.9% 상승하였으며, 음료제조업은 118.2로 전년 동기(117.1) 대비 0.9% 상승함.
 - 식품제조업의 생산자물가는 1분기 127.7에서 2분기 129.1로 상승한 반면, 음료제조업은 같은 기간 118.1에서 118.3으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남.
 - 식품과 음료 모두 생산자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상승 폭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품목별 원재료 가격과 환율 등 생산비용 여건이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한 결과로 판단됨.
 - 식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6년 1분기) 127.7 → (2분기) 129.1
 - 음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6년 1분기) 118.1 → (2분기) 118.3

I 식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월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2026.6., 2026.8.1.,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 2026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은 출하와 생산자물가 모두 업종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며, 품목별 생산·수요 및 원재료 여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업종별 출하는 유지(6.9%), 곡물가공 및 전분(2.9%), 낙농품(1.6%), 기타식품(0.4%) 등에서 증가한 반면, 알코올음료(-7.2%), 과채가공(-6.0%), 육류가공(-3.4%) 등에서는 감소함.
- 생산자물가는 수산물가공(6.0%), 과채가공(3.1%), 육류가공(2.9%) 등에서 상승한 반면, 곡물가공 및 전분(-2.1%), 유지(-1.8%)에서는 하락함.
- 국제 식품 원재료 가격도 품목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수급과 환율, 원재료 구매 시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종별 출하와 생산자물가에도 차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I 2026년 상반기 업종별 출하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

업종명(축약 업종명)	출하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식품제조업	-0.5	1.9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육류가공)	-3.4	2.9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가공)	-0.6	6.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채가공)	-6.0	3.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유지)	6.9	-1.8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낙농품)	1.6	1.9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곡물가공및전분)	2.9	-2.1
기타 식품 제조업(기타식품)	0.4	2.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사료및조제식품)	-0.9	1.2
음료제조업	-4.2	0.9
알콜음료 제조업(알콜음료)	-7.2	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비알콜음료)	-2.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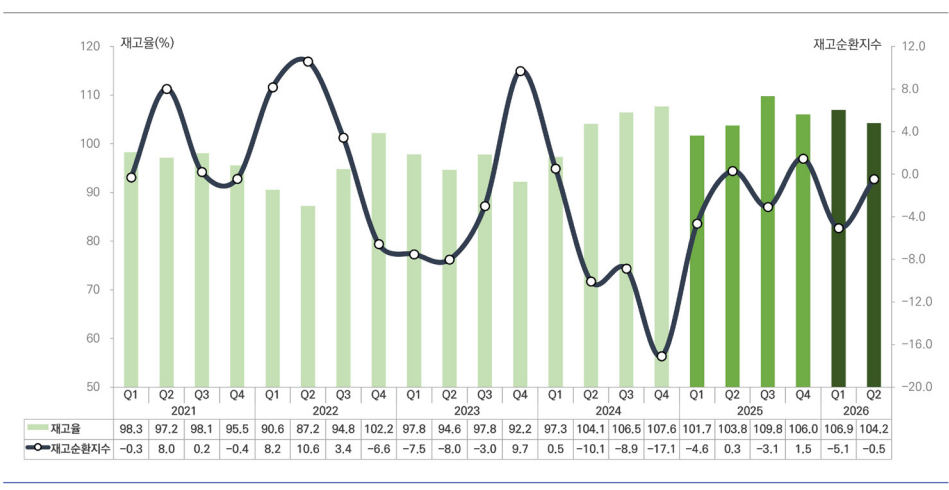
주 1) 기타식품에는 떡·빵·과자류, 면류, 조미료 및 첨가물, 건강보조식품, 도시락 등이 포함됨.
2) 생산자물가지수는 출하지수의 산업 분류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6.6., 2026.8.1.,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2026.6., 2026.8.1., 생산자물가지수.

3. 식품제조업의 재고 현황

2026년 상반기 식품 및 음료제조업의 재고율은 모두 100%를 상회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출하 대비 재고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평균 재고율은 105.6%로, 전년 동기(102.7%) 대비 2.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분기별 재고율은 1분기 106.9%, 2분기 104.2%로 모두 100%를 상회하였으나,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또한 상반기 평균 재고순환지수는 -2.8로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전년 동기(-2.2)보다 음(-)의 폭이 소폭 확대됨.
 - 이는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식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품목별로 선별적으로 회복되고, 이에 대응한 기업의 생산·재고 조정이 이어진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재고율: ('25년 상반기) 102.7% → (하반기) 107.9% → ('26년 상반기) 105.6%
 - 재고순환지수: ('25년 상반기) -2.2 → (하반기) -0.8 → ('26년 상반기)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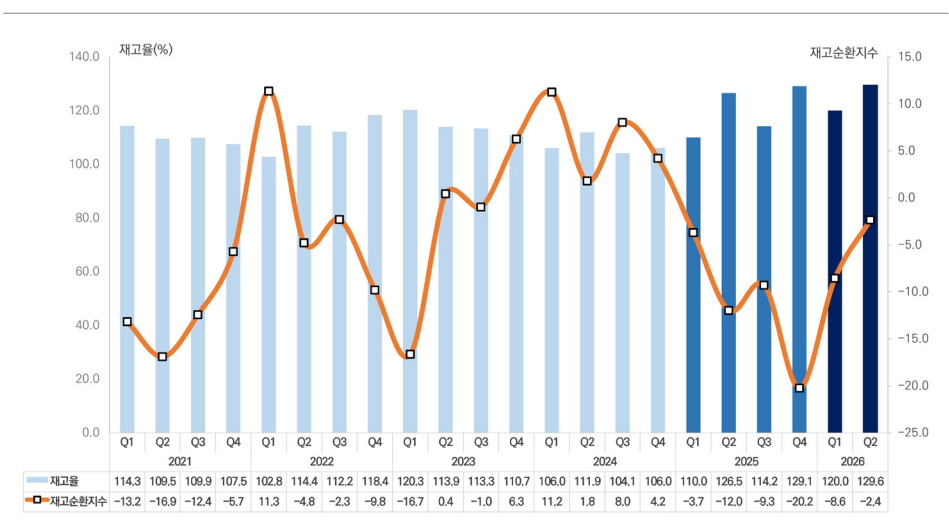
I 식품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주 1) 재고율 = (재고량 / 출하량)× 100
2) 재고순환지수 = 전년 동기 대비 출하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재고증감률
3) 2025년 2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정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6.6., 2026.8.1.,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 음료제조업의 재고율 또한 100%를 상회하였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분기별 재고율은 1분기 120.0%에서 2분기 129.6%로 상승하여, 2분기 들어 출하 대비 재고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반기 평균 재고순환지수는 -5.5로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전년 동기(-7.8)보다 음(-)의 폭은 2.3p 축소되어 재고와 출하 간 증가율 격차는 다소 완화됨.
 - 재고율: ('25년 상반기) 118.2% → (하반기) 119.2% → ('26년 상반기) 124.8%
 - 재고순환지수: ('25년 상반기) -7.8 → (하반기) -14.8 → ('26년 상반기) -5.5

I 음료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주 1) 재고율 = (재고량 / 출하량)× 100
2) 재고순환지수 = 전년 동기 대비 출하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재고증감률
3) 2025년 2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정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6.6., 2026.8.1.,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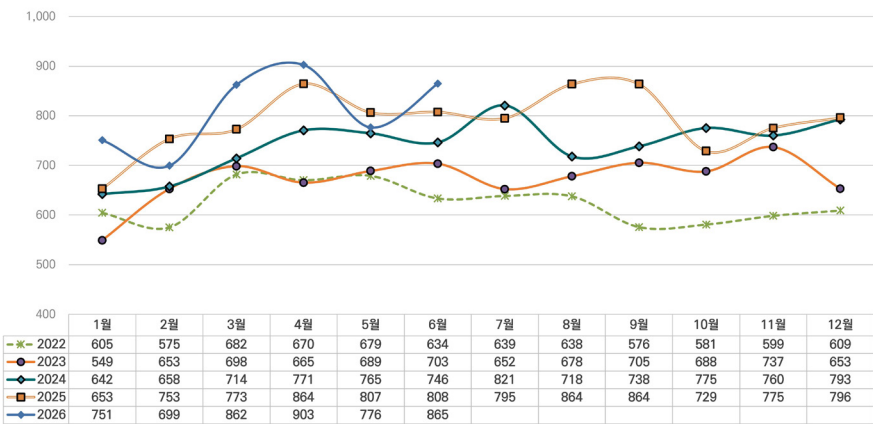
4. 가공식품 수출입 동향

2026년 상반기 가공식품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완만하게 증가

- 2026년 상반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48.6억 달러로, 전년 동기(46.6억 달러) 대비 4.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남.
 -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곡물·곡분 조제품(15.6억 달러)이며, 이어 조제 식료품(9.5억 달러), 음료·주류·식초(5.6억 달러), 채소·과실 조제품(5.4억 달러), 담배 및 제조담배 대용물(5.0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곡물·곡분 조제품(18.4%), 조제사료 등(10.4%), 채소·과실 조제품(7.2%), 육류·어류 조제품(7.1%)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코코아 조제품(-23.4%), 식용 유지(-16.3%), 당류(-11.7%) 등은 감소함.
 - 이는 K-Food에 대한 해외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라면 등 주력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와 중동·중남미·유럽 등 신규·유망시장으로의 수출 증가가 함께 나타난 영향으로 판단됨.

I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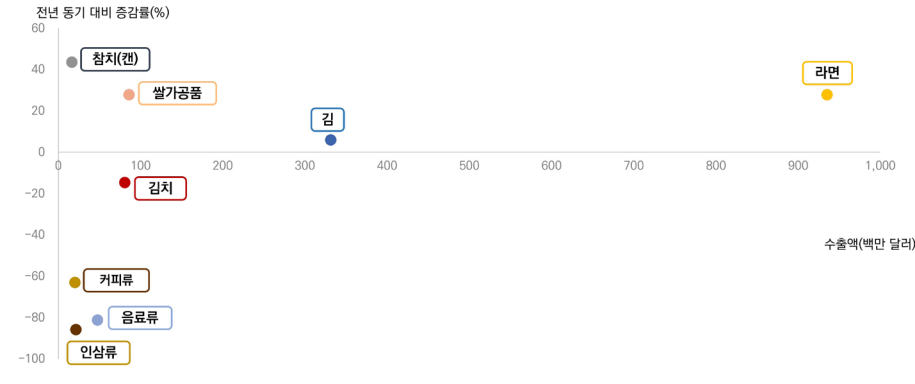


주: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 11, 15~24로 정의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 실적」.

- 2026년 상반기 기준, 주요 수출 품목군의 수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참치캔(43.5%), 라면류(27.8%)와 쌀 가공품(27.8%)의 수출이 증가하였음.
 - 이는 K-콘텐츠 확산과 해외 유통망 확대에 따른 한국 식문화의 인지도 상승이 관련 가공식품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참치캔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라면뿐만 아니라 쌀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도 수출이 확대되어 K-Food 수출 품목의 저변이 점차 넓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I 2026년 상반기 주요 수출 품목군별 수출액과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6년 상반기 K-Food+¹⁾ 수출액은 7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음.
 - 이 중, 농식품(K-Food) 수출액은 53.8억 달러로 5.0% 증가하여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를 견인함.
 - 특히 중동(25.2%), 중남미(19.5%), 유럽(17.9%), 북미(11.0%), 중화권(9.5%) 등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기존 주력시장과 함께 유망시장으로 수출 기반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신규·유망시장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점은 향후 K-Food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판단됨.

I 2026년 상반기 기준 누적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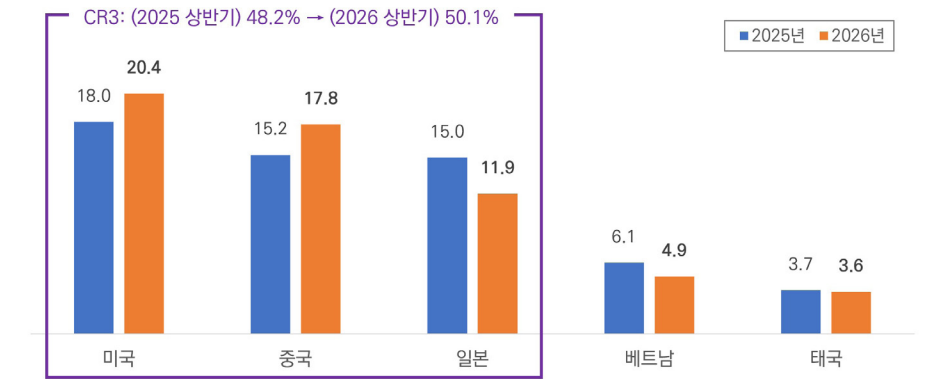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6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K-Food+	13,627.8	7,045.1	4.1
농식품	10,394.4	5,381.9	5.0
- 신선식품	1,563.1	714.1	-0.0
- 가공식품	8,831.3	4,667.8	5.8
농산업	3,233.4	1,663.2	1.4
- 농기자재	2,818.7	1,473.4	2.2
- 스마트팜	109.9	38.7	-27.3
- 동물용의약품	334.3	197.0	2.0
- 펫푸드	160.5	80.8	1.0

주: 면세점 수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7.5.).

1) 케이푸드 플러스(K-Food+)란 농식품(K-Food)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Plus)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선·가공 농산물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계, 농약·비료, 동물용 의약품, 펫푸드 등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됨.

I 2026년 상반기 기준 수출 상위 5개 국가 및 수출집중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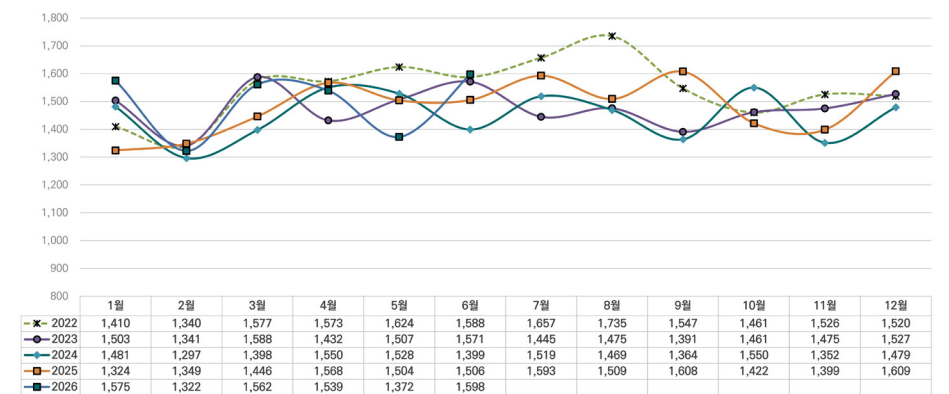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 2026년 상반기 가공식품 수입액은 89.7억 달러로, 전년 동기(87.0억 달러) 대비 3.1% 증가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냄.
 -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식용 유지(14.5억 달러)이며, 이어 조제 식료품(14.2억 달러), 조제사료(11.1억 달러), 낙농품(8.8억 달러), 채소·과실 조제품(8.6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증가율은 담배 및 제조담배 대용물(13.7%), 곡물·곡분 조제품(13.2%), 식용 유지(11.9%), 낙농품(10.3%)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코코아 조제품(-11.1%), 제분공업 생산품(-10.6%), 당류(-10.0%) 등은 감소함.
 - 이는 품목별 국제가격과 국내 식품제조업의 원료 수요가 서로 다르게 작용한 가운데,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영향도 수입금액에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I 가공식품 월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 11, 15~24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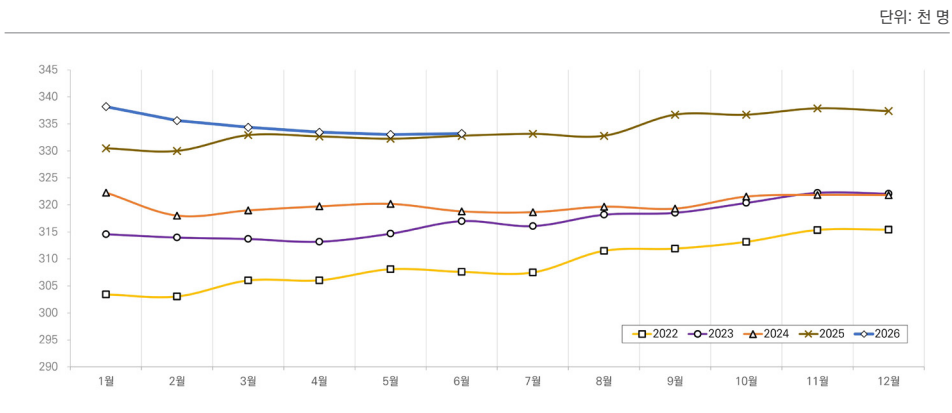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 실적」.

5. 식품산업 고용 동향

2026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최근의 고용 증가 흐름을 지속

- 2026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33만 4,600명으로, 전년 동기(33만 1,800명) 대비 0.8% 증가하며 고용 증가세를 이어감.
 - 이 중 식료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31만 5,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반면, 음료제조업은 1만 9,200명으로 3.4% 감소하여 업종 간 상이한 흐름을 보임.
 - 특히 식료품제조업의 고용 증가가 전체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 확대를 견인하였으며,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하는 등 국내 고용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식품제조업 역시 완만한 고용 확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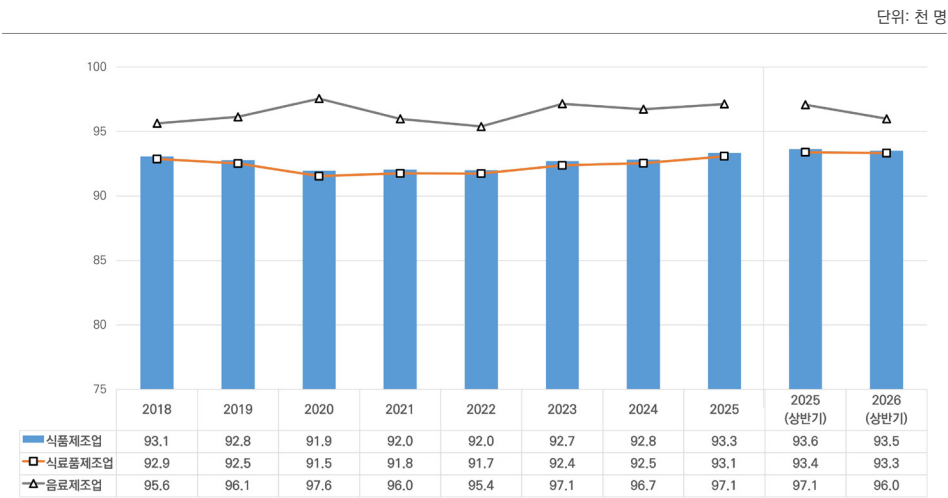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 월별 취업자 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6.6., 2026.8.1., 산업/규모별 고용.

- 2026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93.5%로, 전년 동기(93.6%)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식료품제조업의 상용직 비율은 93.3%로 전년 동기(93.4%)와 유사하였으며, 음료제조업은 96.0%로 전년 동기(97.1%) 대비 1.1%p 하락함.
 - 전반적인 고용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음료제조업은 전체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상용직 비율도 낮아진 만큼 향후 고용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식품제조업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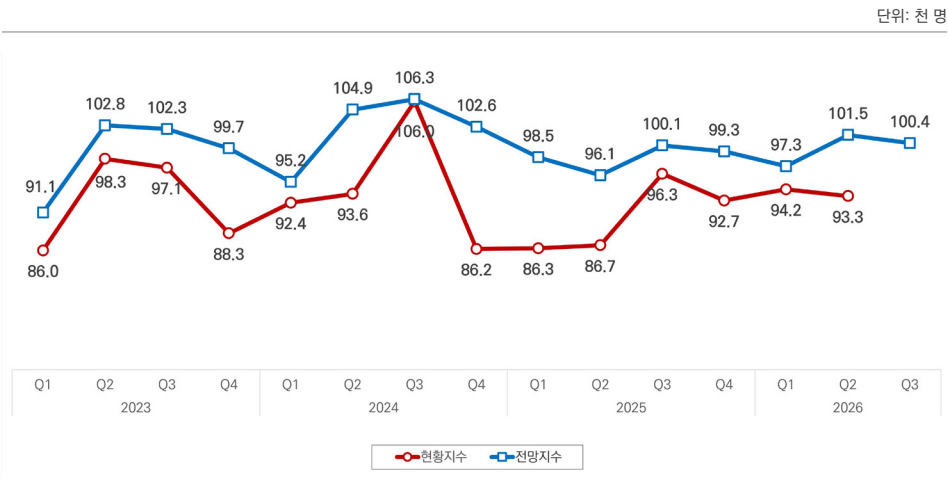
주: 사업체노동력조사는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50,0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통계로,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전수조사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6.6., 2026.8.1., 산업/규모별 고용.

6. 식품제조업의 3분기 경기 전망

2026년 3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계절적 수요 확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경기 개선을 기대

-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결과, 2026년 2분기 경기전반 현황지수는 93.3으로 전 분기(94.2)보다 0.9p 하락하며 기준선(100)을 하회하였으나, 3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0.4로 기준선을 소폭 상회함.
 - 특히 여름철 계절적 수요와 추석 전 생산·판매 확대 가능성, 상반기 K-Food 수출 증가세 등이 3분기 경기 기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판단됨.
 - 다만 전망지수가 100.4로 기준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인 만큼, 본격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제한적인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식품산업 경기동향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6.2/4., 2026.8.1., 식품산업 경기 현황·전망지수 종합.

- 세부 업종별로는 발효주업, 낙농빙과, 수산식품 등에서 3분기 경기 개선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기전반 전망지수는 발효주(112.7)가 가장 높았으며, 낙농빙과(106.5), 수산식품가공(105.9), 유지제조(103.3), 기타식료품(102.4), 도시락(101.7), 곡물가공(101.4), 비알코올음료(100.8) 순으로 기준선을 상회함.
 - 업종별 전망 차이는 계절적 수요, 원재료 수급 여건, 수출 비중 등 업종 특성이 서로 다르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특히 계절·기상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음료·빙과류와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가공식품 업종에서 개선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호전 전망 업종 : 발효주(112.7), 낙농빙과(106.5), 수산식품가공(105.9), 유지제조(103.3), 기타식료품(102.4), 도시락(101.7), 곡물가공(104.4), 비알코올음료(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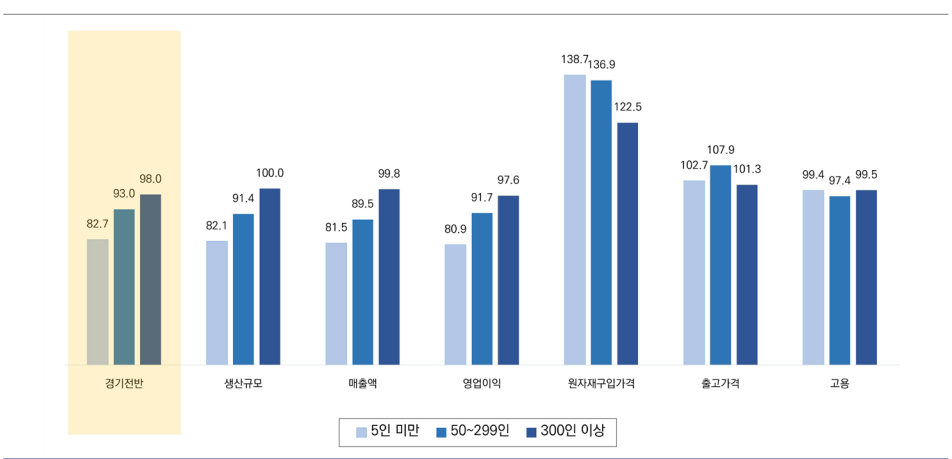
식품제조업 업종별 2026년 2분기 경기 현황 및 3분기 경기 전망



주: 2분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 3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6.2/4., 2026.8.1.,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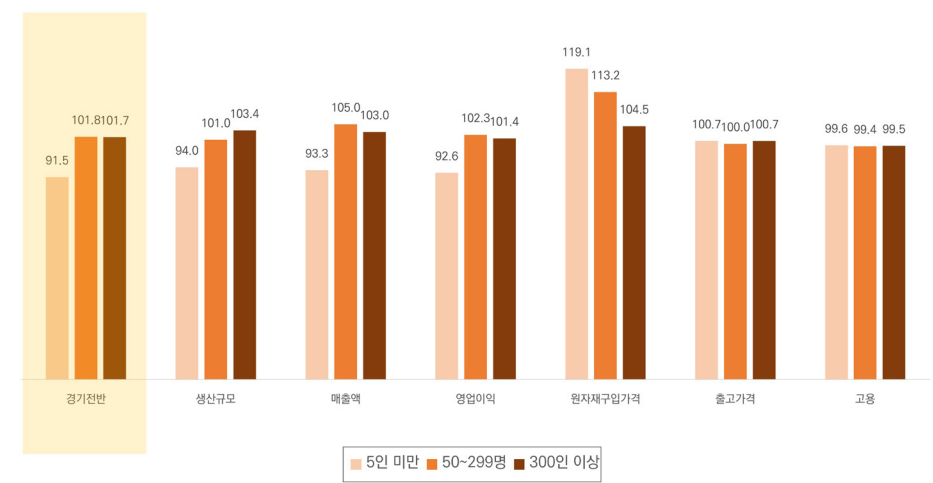
- 기업 규모별로는 중대규모 기업에서 3분기 경기 개선 기대가 나타난 반면, 5명 미만 소규모 기업은 기준선을 하회함.
 - 3분기 경기전반 전망지수는 5명 미만 91.5, 50~299명 101.8, 300명 이상 101.7로, 중규모와 대규모 기업은 경기 개선을 기대한 반면 소규모 기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을 나타냄.
 - 원자재 구입가격 전망지수는 소규모 119.1, 중규모 113.2, 대규모 104.5로 모든 규모에서 기준선(100)을 상회하였으나, 2분기 현황지수인 138.7, 136.9, 122.5보다는 낮아져 원자재 가격 부담의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식품산업 규모별 2026년 2분기 경기 현황



주: 2분기 경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6.2/4., 2026.8.1.,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I 식품산업 규모별 2026년 3분기 경기 전망



주: 3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6.3/4., 2026.8.1.,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자재 가격과 식품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확대와 주요 식품원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6년 하반기에는 대두유 등 7개 품목에 이어 전지·탈지분유 등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참깨의 저율관세수입(TRQ) 물량 확대와 밀가루 가격 상승분 일부 지원 등을 추진함.
 - 또한 축산물·계란 등 일부 품목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수입 확대와 할당관세 연장 등을 병행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은 식품기업의 원재료 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3분기 생산·판매 여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저자 정보

- 박미성 선임연구위원(061-820-2362), mspark@krei.re.kr